현대車, 월드컵 맞아 마룬5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마룬5와 협업한 TV광고 전세계 방영

마룬5가 참여한 현대자동차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TV광고 싼타페편.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로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세계적인 밴드 '마룬5(Maroon 5)'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밴드 마룬5와의 협업을 통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밥 말리의 명곡 '쓰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리메이크했다.

축구 경기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번 광고는 주차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의 안전 하차 보조 기술(SEA)과 현대자동차 소형 SUV 코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FCA)을 마룬5가 연주하는 '쓰리 리틀 버즈'와 함께 선보인다.

'쓰리 리틀 버즈'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한 TV 광고는 전세계에 방영된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마룬5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송 '쓰리 리틀 버즈'는 마룬5의 디지털 싱글 음반으로 지난 9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발매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신규 광고에서 마룬5의 '쓰리 리틀 버즈'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한 안전 기술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카카오M 서강대와 공연문화 발전 MOU 체결

서강대 박종구 총장(왼쪽)과 카카오M 이제욱 대표가 공연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카카오M

종합콘텐츠기업 카카오M이 서강대학교와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캠퍼스에서 국내 공연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M과 서강대는 다양한 공연 콘텐츠 기획과 공연시설 이용 등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또한, 서강대 재학생에게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문화 콘텐츠 전문가를 공동으로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카카오M은 국내 최대 뮤직플랫폼 '멜론'과 티켓판매 서비스 '멜론 티켓', 40년간 이어온 음악 투자·유통 사업과 '멜론뮤직어워드'로 대표되는 공연기획 인프라 등 케이 컬처 리딩기업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6월 12일 (음 4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지난날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60년생 화창한 봄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솜옷이 생각나는 날. 72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4년생 문서 운이 있어 거래가 순조롭게 처리 된다.

소 4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61년생 나의 특기를 남도 알아주니 기쁘다. 73년생 상대방이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자. 85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호랑이 50년생 세 살배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62년생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니 의견통일이 먼저. 74년생 현실이 힘들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만족하자. 86년생 남쪽에서 오는 귀인이 있다.

토끼 51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은 옮겨지지 않는다. 63년생 내용만큼 포장도 중요한 법이니 신경을 써야 한다. 75년생 지나간 인연이 유난히 그리운 날. 87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용 52년생 나라 밖에서 소식이 오니 즐겁다. 6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이다. 7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외출을 자제하자. 88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뱀 53년생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65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77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나 내 것이 소중하다. 89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날.

말 54년생 아직은 오늘도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66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이다. 78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길을 떠나 보자. 90년생 친구인가 싶었는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따로 없다.

양 55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67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79년생 정확한 거절이 관계를 좋게 한다. 91년생 업무가 힘들다면 상사에게 의논하고 후배의 조언도 구하라.

원숭이 56년생 민 씨 성씨가 오늘의 길잡이가 될 것. 68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80년생 함께하려거든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92년생 동료의 시기가 따를 수 있으니 주위를 경계하라.

닭 57년생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69년생 용서보다 완벽한 복수는 없다.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81년생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날이다. 93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땅도 넓은 법이다.

개 58년생 쉽게 얻은 행복은 빨리 사라진다. 70년생 흰색과 숫자 4, 9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82년생 지나친 자존감을 오히려 해를 끼친다. 94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니 일희일비 하지마라.

돼지 59년생 작년에 뿌린 씨가 결실을 본다. 71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이니 언쟁하지 말고 합의하라. 8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의견이 달라도 나서지 마라. 95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일이 풀린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1	2	5		8	3	4	
		3		7		9		
	2	7	1		6	4	9	
				4				
	6	9	7		3	5	2	
		1		3		2		
	7	5	4		9	8	6	
			2		7			

5			9		8			2
	9	4	1		5	6	3	
6		3		1		9		5
	1		2		3		7	
4		9		6		3		1
	6	2	7		9	8	5	
3			4		1			9

스도쿠 정답

9	5	1	7	6	2	4	3	8
3	6	8	9	1	4	5	7	2
4	7	2	5	3	8	1	9	6
1	2	5	3	8	7	9	6	4
7	3	6	2	4	9	8	5	1
8	9	4	6	5	1	7	2	3
2	8	9	1	7	6	3	4	5
6	4	3	8	9	5	2	1	7
5	1	7	4	2	3	6	8	9

3	1	7	2	5	6	8	4	9
9	6	2	1	8	4	7	5	3
4	8	5	9	3	2	6	1	7
1	5	8	3	9	7	2	6	4
6	4	3	5	2	9	1	7	8
8	1	5	2	6	3	4	9	7
6	7	3	8	1	4	9	2	5
7	9	4	6	5	1	3	8	2
5	3	6	9	7	8	1	4	2

문제 제공= 보누스

쌍용車 티볼리 오너들과 반려견 캠프

도그요가 전문가 노나미 수의사가 반려견 건강을 위한 도그요가를 교육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오너들과 반려견의 행복한 자동차생활을 위한 초청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펫 글램핑'은 지난 2016년 최초로 개최된 펫 캠프에 이은 두 번째 반려견 아웃도어 행사로 9~10일 경기 남양주 더 드림핑에서 1박 2일로 진행됐다. 티볼리 브랜드 보유 고객 10팀을 초청했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펫 드라이빙 ▲펫 보트체험 ▲전문가와 함께 하는 도그요가 등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최인영 수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반려견 건강검진과 행동교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건설 김형 신임 사장 공식 취임

대우건설 김형 신임사장이 11일 서울 새문안로 본사 금호아트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김형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형 사장은 11일 서울 새문안로 본사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건설 환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건설 본연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무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무안전성 개선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 등에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장으로서, 선배로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김상회의 四季

현재에 자만하지 말지니

석가모니부처님의 직설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경전인 니까야 경전중의 하나인 "쌍윳따니까야" 에 나오는 예화중의 하나이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몹시 궁색하고 지친 불쌍한 모습을 한 이가 지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시봉제자인 아난다존자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 이렇게 묻는다. 부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죄업을 짓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나도 한때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여라.. 이 구절을 보고 필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지니신 깊은 혜안과 진정한 자애심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보통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됐다는 마음에 음식이나 옷 등을 나눠주곤 한다. 기부금과 같은 보시금의 돈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저들과 같은 처지가 아님을 다행으로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 보다 형편이며 지위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경우가 없다 할 수 없다. 물론 받는 입장에선 고맙게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불쌍한 처지여서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세생생을 살아오면서 나 역시 어느 한 때는 저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주는 도움이나 보시라면 우리 마음속의 혹시나 하는 자만심을 경계할 수가 있다. 도우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진정한 보시나 도움이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우 이웃을 도우면서 굳이 생색을 내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남을 돕는다는 좋은 일이 불 선업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에 존경을 느낄 따름이다.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몰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래서 숭고하다.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의 거만함을 경계한다. 그래서 나온 또 하나의 얘기가 신분이 천하거나 자신보다 지위나 재력 또는 외모가 낮다하여 남을 무시하지 말 것은 물론 교만하지 말라고 곳곳에서 설하고 계신다. '옥야경'도 보면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와 부잣집 딸이라는 자만심에 교만함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옥야에게 부처님은 천상 미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통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옥야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에 몹시 부끄러워진 옥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곧 수다원과를 증득하였다는 일화 또한 유명한 이야기다.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한 때는 거지였던 적도 기녀였던 적도 있었을 우리 자신들의 돌고 도는 인생이다. 현재의 입장이 좋다하여 자만할 일이 아니며 또한 현재의 일이 어렵다하여 낙담할 일이 아닌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